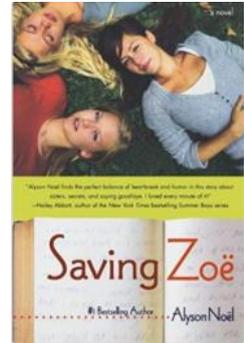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AVING ZOE
가제 : 언니의 일기장
저자 : Alyson Noel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07년 9월 4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올해 7월 미국 10개 도시에서 동시 개봉, 10월 Amazon 릴리스 예정인 동명의 영화 원작 소설
- *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폴란드와 출판 계약 완료
- * “자매의 관계와 비밀, 이별의 이야기가 가슴 아픈 슬픔과 유머의 완벽한 조화로 완성된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시리즈 『Summer Boys』의 작가 헤일리 애벗
- * “삶과 사랑, 상실에 관한 영리하고 매력적인 이야기” - 『Wuthering High』의 작가 카라 록우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매라도 외모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조에와 에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두 사람도 그랬다. 연구 열정이 넘치는 교수인 엄마 아빠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 받아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공부에 더 관심이 많은 에코는 누가 봐도 훨씬 더 빼어난 미모를 십분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언니 조에가 늘 신기했다. 하지만 손톱에는 항상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책 같은 걸 읽기엔 인생이 너무 신나!’라고 외치면서 말괄량이처럼 살던 언니는 더 이상 곁에 없다. 1년 전,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최악의 비극이 에코의 집에 덮친 것이다. 조에가 누군가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시체로 발견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에코는 이 일을 어떻게 소화시켜야 할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때로는 분노에, 때로는 끝이 없는 우울함에 빠져 언니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뜻밖의 물건이 손에 들어오면서, 에코는 그토록 아름답고 생기가 가득 하던 언니를 죽인 범인을 직접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2007년에 출간된 후 실제로 자매 사이인 바네사 마라노와 로라 마라노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지난 7월 미국에서 개봉된 이 원작 소설은 지극히 평범한 열다섯 살 소녀인 에코가 미결 사건으로 남은 언니의 살인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무뚝뚝하고 스티기도 별로 없는 편인 가족들을 환하게 웃게 만들던 존재, 언젠가 유명한 모델이나 여배우가 되기를 갈망하던 고등학생이 왜 그렇게 일찍 싸늘한 주검이 되어야 했는지, 에코가 밝혀내는 진실은 생각보다 어둡고 예상보다 더욱 암울하다.

에코는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마크가 꽤 오랫동안 조에와 붙어 지냈지만 무슨 영문인지 살해되기 전 즈음에는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라 수

사를 받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1년이 지나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상 마크와 수시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어색하고 불편했던 에코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다른 이유로 그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언니와 사귀던 때부터 느낀 호감이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언니가 떠난 1주기에 마크가 손때 묻은 노트 하나를 건넸을 때 에코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펼쳐보니, 언니가 펜으로 직접 쓴 일기장이었다. 남의 일기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지만 언니는 자신의 생활을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다 터놓고 이야기하던 사람이라 에코는 처음에 별 흥미를 갖지 않았다.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는 확신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심코 몇 장을 읽어본 후, 에코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언니의 ‘진짜’ 생활을 자신이 반의 반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실종되기 직전까지 조에 언니는 부푼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어린 소녀들을 노리는 맹수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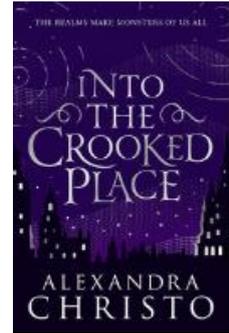
조에가 모든 것을 던질 만큼 사랑했던 마크와의 만남이 뼈격대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케케묵은 계급 관념에 사로 잡힌 조에와 에코의 부모님은 마크를 영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이전 학교들에서 분노 조절 문제로 기물을 마구 때려 부순 뒤 강제로 전학을 다닌 전력까지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마크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조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만 했고 둘 사이에 싸늘한 공기는 쌓여만 갔다. 그 때, 조에는 자신처럼 모델을 꿈꾸는 칼라라는 친구를 새로 사귄다. 칼라 손에 이끌려 곳곳에서 열리는 파티장을 찾아 울적한 마음도 달래고 좀 더 빨리 연예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다니던 조에는 지역 전체에 마약상으로 소문이 자자한 제이슨과 만나게 된다. 칼라가 처음부터 제이슨에게 훌쩍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칼라의 성화에 못 이겨 셋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다른 파티에 가기도 했지만, 조에는 그가 무슨 일로 돈을 버는지 아는 이상 늘 그를 경계했다. 하지만 제이슨은 노골적으로 조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칼라가 없어도 학교가 끝나면 교문 앞에 데리러 오고,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방송계와 영화계 사람들과 얼마나 친분이 두터운 지 몇 시간이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 제이슨의 알쏭달쏭한 접근을 딱히 밀어내지 못하던 어느 날, 조에는 칼라와 함께 그의 집에서 악몽 같은 사건을 겪고 만다. 사태가 모두 끝난 뒤에야 어렵풋이 떠오른 건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다는 것, 곁에 있던 칼라도 마찬가지로 제이슨이 두 소녀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행위를 강제로 하게 만들었다 것,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이었다.

에코는 마크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언니의 일기장에 적힌 사람들을 직접 만나 무엇이, 누가 조에 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밝혀 내기로 한다. 그 음흉한 자들의 수렁에 빠질 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 과연 진짜 살인자를 찾을 수 있을까? 서스펜스와 흡입력이 가득한 범죄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알리슨 노엘(Alyson Noël)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Faking 19』, 『Art Geeks』, 『Prom Queens』 등을 쓴 소설가로 현재까지 발표한 책들은 35개국에서 출간되고 미국에서만 총 200만 부가 판매됐다. 내셔널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NYLA 북 오브 윈터 어워드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제목 : INTO THE CROOKED PLACE
가제 : 마법 왕국의 아웃사이드
저자 : Alexandra Christo
출판사: Hot Key Books / Feiwel & Friends
발행일: 2019년 10월 8일
분량 : 496쪽
장르 : 판타지



*** 독일과 미국, 영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데뷔 소설 『TO KILL A KINGDOM』 작가의 신작 판타지 2
부작 시리즈 - 첫 번째 이야기**

우스카냐 왕국의 모든 마법이 모이는 도시, 크레이제에서 인파로 북적이는 곳에서 유난히 사람들이 더 몰리는 곳이 있다. 마법사가 아니어도 신비한 마법의 힘을 잠시나마 활용할 수 있는 약, 행복, 사랑, 예언 능력 등 원하는 능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마법의 물약을 파는 판매대가 세워진 곳이다. 그 중심에는 어려서부터 마법으로 생계를 이어온 소녀, 타비아가 있다. 다재 다능한 사람들이 넘치는 크레이제에서도 영업 실력 하나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는 타고난 쇼맨십, 지나가던 발걸음을 모두 단번에 모을 줄 아는 타비아는 역시나 거리에서 뼈가 굵은 웨슬리와 한 팀이 되어 매일 시장에서, 광장에서 마법을 판매한다. 두 사람이 속한 거대 조직의 우두머리는 태어나 갈 곳이 없는 고아들을 거둬들여 살려주는 대신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밑에서 장사를 시켰다. 어린 아이들만이 가진 특별한 흡입력, 어른이 나설 때보다 판매고가 훌쩍 뛰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이 제도에서는 조직에 속한 아이들 모두 '빛'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해진 그 빛을 장사해서 번 돈으로 모두 갚기 전까지는 지긋지긋한 가판대 앞을 벗어날 수 없다. 빛을 다 못 갚고 열여덟 살이 넘어 성인이 되면, 우스카냐 왕국을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상 불법적인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범죄자로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다. 타비아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전자를 원했고, 이제 딱 7개월만 더 채우면 크레이제를 영원히 떠날 수 있다. 조직의 부두목으로 신임을 톡톡히 얻고 있는 웨슬리가 타비아의 재능을 진작에 알아보고 적극 지원해준 덕분에, 해오던 대로만 장사가 굴러간다면 엄청난 빛도 다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6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어쩔 수 없이 조직원이 되어 꿈쩍없이 붙들려 사는 동안, 타비아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온갖 더러운 사기 행각에 가담해야 했다. 사람들에게 파는 마법의 약이 눈곱만큼도 안 되는 희미한 마법에 색소와 물을 섞은 거의 가짜 약에 가깝다는 사실은 애교 수준이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가리는 것도 없고 주저함도 없는 두목의 '사업' 원칙에 따라 남의 인생을 갈가리 찢고 망쳐놓는 일에 발을 들여야 했던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항상 매력적인 미소와 수백, 수천 번 훈련된 깔끔한 손 동작으로 수정 구슬을 굴리거나 예언이 떠오르는 마법의 점괘를 들여다보는 시늉을 하지만, 타비아에게 크레이제는 감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때와 같이 구경꾼들 앞에서 예언의 마법을 선보이던 날, 웨슬리와 오래 전에 미리 짜 놓은 식

상한 문구가 아닌 난생 처음 보는 예언이 수정 구슬에 떠오른다. '이제 시간은 낯선 이의 손으로 옮겨가고, 네가 거둔 모든 성공은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불길한 문구에 타비아는 장사 중인 것도 잊고 뒷걸음질칠 만큼 기겁한다. 그것이 크레이제를 덮친 사악한 기운을 의미한다는 사실일 줄은, 모든 것을 함께 지켜보던 웨슬리도 알아채지 못했다.

문제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알 수 없는 출처에서 구해오는 마법 물약의 원재료, '진짜 마법'의 원액이 될 '행복의 묘약'에서 시작됐다. 부두목인 웨슬리는 수십 병이나 되는 이 신제품 물약을 타비아에게 안겨주며 다른 제품보다 판매 금액에 따른 빛 청산 금액을 더 늘려주겠다고 판매를 종용하지만, 타비아는 계속 미루는 중이었다. 행복은 왕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잘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로 웨슬리는 잔뜩 부풀어 있었지만 원하는 건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빨리 조직에서, 크레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인 타비아는 행복을 약속하며 사기를 치고 싶지 않았다. 왜 우두머리는 이 행복의 묘약에 유독 집착할까? 타비아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며칠 후, 타비아는 우두머리가 크레이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교활하고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상을 파멸시킬 흑마법을 행복의 묘약으로 둔갑시켜서 팔아 치우려는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행복은 고사하고 일상조차 모두 빼앗기는 파멸의 날이 오고 말 것이다. 혼자 힘으로는 이 거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은 타비아는 태어나 처음으로 연맹을 떠올린다. 매일 만나지만 정말 한 순간도 꿀 보기 싫은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타비아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조직에 들어와서 굶주린 배를 움켜지고 살기 위해, 짓밟히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버틴 덕분에 열아홉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두목 자리에 오른 웨슬리, 낮이면 크레이제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감시하고 밤이면 링에 올라 거액의 판돈을 건 관중들 앞에서 상대가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격투를 벌이는 카람, 그리고 가족 전체를 몰살시킨 자들을 찾아 복수할 날만 꿈꾸는 마법사 색소니까지, 타비아는 가장 필요한 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세상을 구하거나 누구를 돕는 일 따위에 전혀 관심 없고, 각자 짊어진 빛과 이유 때문에 억지로 조직에 붙어 있던 네 사람은 미스터리한 출처에서 얻은 마법의 힘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는 우두머리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을까? 타비아가 흑마술의 정체를 모를 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문제의 악병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크레이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자 서로를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타비아, 웨슬리, 카람, 색소니 네 명의 아웃사이드는 마침내 손을 맞잡는다. 꿈도, 야망도 많지만 불운한 삶에 갇힌 네 사람이 같은 목표를 위해 진정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을 흑마술이라는 재미 있는 소재와 촘촘한 이야기로 엮어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알렉산드라 크리스토(Alexandra Christo)는 런던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하고 카피라이터로 활동 중이다. 데뷔 소설 『TO KILL A KINGDOM』은 독일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영국에서 제 5판까지 인쇄되며 현재까지 총 75,000 부가 판매됐다. 미국에서도 제 4판까지 출판되었으며 브라질, 불가리아, 러시아, 스페인 등 10개국에 번역됐다.